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참가 프로그램	2025 동계 셀프 디자인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6.01.12 ~ 2026.02.07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후 국제관에 모여 간단한 설명회를 들었고, 이후 바로 가능한 준비 사항들은 빠르게 처리했다. 보험이나 항공권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비교한 후 가장 나은 조건을 골라 진행했다.

비자의 경우 연수 기간이 4주 27일로 30일 이내에 해당하여 비자 프리로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지는 않았다. 또한 출국 전 현지 학교 측에서 보내준 메일을 통해 일정, 기숙사, 수업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며 준비를 진행했다.

개인적으로는 출국 전 여권 유효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eSIM과 VPN을 미리 준비했으며, 완전한 돈들과 현지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다. 또, 위챗과 알리페이 등 현지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앱들을 사전에 설치해 두었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입국 후 첫날에 바로 기숙사로 가서 기숙사 비용 4,680위안(2026년 1월 기준)과 보증금 500위안을 현금으로 내고 방을 받은 다음, 사전에 학교 측에서 보내준 메일에 적혀 있던 학교 건물로 가 입학 절차를 진행했다.

학비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4,700위안(4주 기준)을 낸 후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바로 학생증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선택 사항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비용은 20위안이 들었고 본인은 발급받았지만 배달이 너무 잘 되어 있어 한 번도 학식을 먹지 않았다. 따라서 학식을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다음 날부터 바로 연수가 시작되는데, 하루를 학교 등록에 사용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그 주 토요일에 월요일 수업을 보강했으며, 상해외대는 수업 기간과 시간

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다.

반 배치의 경우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메일로 보내 주어 한국에서 반 배치를 받고 왔다. 본인의 경우 中2반을 배치받았는데, 中2반은 중국어 단어 약 3,000 단어를 배운 사람들이라고 한다.

교육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30~10:00 / 10:20~11:50까지 진행된다.

교재 한 권으로 선생님 두 분이 요일마다 바뀌어 수업을 진행하신다. 수업은 교재를 이용해 회화식으로 진행되며, 단어와 문법, 본문을 함께 공부한 후 조별로 따로 설명하고 조별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다. (시간표 아래 참조)

금요일에는 주로 활동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교 근처 공원인 두산 공원에 가서 중국인을 연령대별로 인터뷰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만두 만들기 등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참가 성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변화라기보다는, 언어 사용에 있어 자연스러운 익숙함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일상적인 표현조차 머릿속으로 조합하며 한 번 더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나왔는데, 현지에 와서는 수업과 생활 속에서 계속 중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거나 배달을 시킬 때, 기숙사 생활 중 필요한 상황에서 간단한 질문을 할 때처럼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중국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표현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고 대화가 이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한결 편해졌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섞어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전달하면 된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은 언어를 공부할 때의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중국어를 입에 붙게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항공료 - 38만 원 후반 (일찍 예약 추천)

보험료 - 27일 기준 15,000원 (카카오 보험)

비자 - 30일 미만 체류로 비자 프리 입국

통신비 - eSIM 30일(70,000원), VPN 2대 30일(15,000원)

개인 경비 - 1,000,000원 (식비, 생활비, 통신비 포함)

※ 본인은 식비 지출이 가장 컸으며, 쇼핑은 따로 많이 하지 않음

숙박 비용(기숙사) - 4,680위안 (+ 보증금 500위안, 이후 환급)

학비 - 3,700위안 (4주 기준)

학교 관련 비용 - 8,900위안 (한화 약 1,910,000원)

학교 지원금 - 1,500,000원

순수 개인 부담금 - 약 2,000,000원

총합 - 약 3,300,000원 ~ 3,400,000원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이번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점이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다른 환경과 가치관,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보다 타인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 식당 이용, 배달 주문 등 일상생활 속에서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고, 처음에는 서툴고 긴장되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뜻이 통하고 대화가 이어진다는 경험을 통해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해 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다. 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부족함을 느꼈고, 영어 또한 중국어를 하면서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해결하고, 낯선 환경에서 혼자 생활하며 수업을 듣고

일정을 짜고 무언가 안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느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길을 잘 찾아 해결하고 적응해 가는 나를 보며 나 자신은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 계획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HSK 5급 이상 취득을 목표로 중국어 학습을 지속하고, 토익 공부 등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JLPT나 다양한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일상 회화 정도는 가능한 다양한 나라의 언어 능력을 키울 것이다.

2) 진로 계획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었으나, 해외 생활과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해 언어를 활용하는 직업군에 대해 뚜렷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기존에 많이 떠올리는 승무원이나 호텔리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해외 관련 업무, 공항 보안 및 운영 관련 직무 등 다양한 분야로 진로의 폭을 넓혀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업군들의 실제 업무 내용과 필요한 역량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진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일단!! 자신이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할 수 있을까?”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하세요. 말 안 통하는 외국이라도 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물어보고 많은 걸 배워 오세요!!

제가 연수를 마친 상해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수를 끝낸 사람들이 많이 블로그를 올리셔서 아마 정보 찾기 같은 경우는 쉬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북경어언대나 학교에서 보내주는 북방 지역 어학연수를 갈 생각이 있다면, 셀프 디자인은 저처럼 남방 지역 가는 거 추천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나 말투 등이 달라서 많이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 전에 중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리 늘어요. 틀려도 괜찮고, 발음이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많이 말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또 연수 기간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수업 외 시간에도 혼자만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최대한 어울리고 활동에 참여해 보길 바랍니다. 그 경험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거예요!!

8. 기타사항



기숙사 1인실



교실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서명 필요)



실제 독립운동가들이 거주하며
활동했던 신천지에 위치한 상
하이 임시정부



중국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원



상해외국어대학교 정문에서 도
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루쉰공
원 내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
장